오정해 "마음은 언제나 고향에…지역 발전 응원할게요"

전남도, 고향사랑기부제 동행 응원 릴레이 동참

"나고 자란 내 고향이 항상 행복하고 더 많은 분이 함께하는 곳이라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 있어도 마음은 늘 그곳을 향해 있기에 고향 발전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을 응원할게요."

영화 '서편제'에서 주인공 송화 역으로 전 국민의 사랑을 받은 국악인이자 영화배우 오정해〈사진〉씨가 전남 고향사랑기부제 응원에 동참했다.

오정해씨는 목포 출신으로 국창 김소희 선생에게 소리를 배웠으며, 영화 '서편제'에 캐스팅돼 한국 최초 100만 관객을 넘기며 전 국민적 사랑을 받았다. 이후 국악인이자 배우, 대학 교수로 활동하며 국악 발전에 힘쓰고 있다. 2017년 강진 오감통 전남음악창작소 자문 겸 명예홍보대사로 활동하는 등 전남의 문화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전남도는 남도장터상품권, 친환경농산물꾸러미와 함께 여수 갓김치, 나주 배, 영광 굴비 등 전남의 매력이 담긴 농수축산 특산품과 천연염색 체험,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입장권 등 다양한 체험·관광상품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제공하고 있다.

올 1월 본격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하는 지자체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금액의 30% 이내 답례품과 10만 원까지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개발공사, 경북개발공사와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부

전남개발공사와 경북개발공사 임직원들이 20일 오전 NH농협은행 전남영업부와 경북지역본부를 각각 방문해 500만원을 서로 기부했다. 〈사진〉

이들 공사는 지난 3일 영·호남 상생발전을 위한 사회적 가치 확산을 주요 골자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기부는 고향사랑기부금이 양 지역의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 기금사업에 활용된다는 점에서 두 기관의 사회공헌 협력 사업에도 뜻이 맞아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졌다. 기부금은 직원 개개인이 매달 급여에서 만원 미만의 지폐나 동전을 모아 마련한 끝전모금으로 전달됐다.

전남개발공사는 오는 4월 전남도와 경북도가 공동 주최하는 '영·호남 상생협력 화합대축전'의 성공 기원을 위해 행사기간 동안 경북개발공사와 공동으로 도내 농어촌일손 돕기 등 대규모 사회 공헌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솔선수범 참여해주신 직원여러분들께 감사하다"며 "이번 기부를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가 정착돼 고향사랑기부제가 활력을 얻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양시새마을금고 적십자 회원유공장 명예장 수상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허정)는 광양시새마을금고(이사장 김재숙)가 적십자 회원유공장 명예장을 수상했다고 최근 밝혔다. 〈사진〉

적십자 회원유공장 명예장은 누적 1000만원 이상 기부해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을 위한 재원 조성에 기여한 기부자에게 주어지는 포상이다.

광양새마을금고는 광양지역 장애인 및 다문화가정 지원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꾸준히 나눔문화를 실천하고 있는 기업이다. 지난해부터 광양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1000만원 상당 마스크 기탁, 2월에는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성금 1000만원을 기탁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꾸준한 나눔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

박상철 호남대총장, 해외의료봉사 학생들 격려

박상철 호남대학교 총장은 최근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활동에 나서는 간호학과(학과장 하윤주) 학생들을 총장실로 초청해 격려했다.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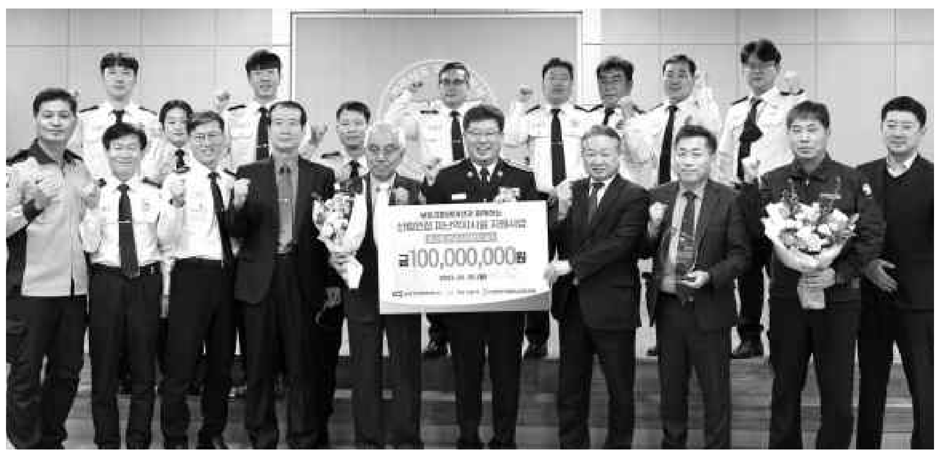
이 자리에는 유혜숙 보건대학장, 하윤주 간호학과 학과장 및 임장지도 교수인 방초희 교수와 해외봉사활동 참여학생(4학년 김유진, 박우현, 전현제, 진현진) 4명이 함께 참석했다.

박상철 총장은 "예비 의료인으로서 사랑과 나눔의 봉사를 실천하며 글로벌 리더십을 익히고 무엇보다 안전에 유의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해외의료봉사활동은 학생국외교류 활동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있는 (사)아시아희망나무와 연계해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됐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여수소방서, 피난약자시설에 비상소화장치 지원



여수소방서(서장 이달승)는 지난 20일 여수산단업체 보임코퍼레인션(주), 재향소방동우회와 피난약자시설 및 도서지역 시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를 위한 피난약자시설 호스릴 비상소화장치 지원사업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재향소방동우회를 통해 약 1억원 상당의 사업비를 후원한다. 〈여수소방서 제공〉

TV프로그램 2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해 볼만한 아침 M&W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마녀의 게임(재)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9	30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내 눈에 콩깍지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45 뽀뽀뽀 좋아좋아	30 살맛나는 오늘
11	00 동행(재) 55 안녕 우리말(재)	00 두뇌공조(재)	15 헬로키즈 체육교실(재) 30 반짝이는 프리채널3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15 개는 훌륭하다(재)	00 12 MBC 뉴스 25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전국 TOP 10 가요쇼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세상다반사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50 영화가 좋다(재)	20 헬로키즈 과학교실(재)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 10 생로병사의 비밀(재)			00 뉴스브리핑
3	00 영상앨범 산(재) 30 천상의 컬렉션 베스트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10 두리둥실 뭉게공항 3(재) 30 TV 유치원	55 기분 좋은 날(재)	
4	00 사사건건	0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30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재)	55 5 MBC 뉴스	00 좋은아침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재)	50 통합뉴스룸 ET	10 일타강사 스페셜	00 SBS 오뉴스 50 KBC뉴스와이드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05 본방을 보자	50 테마스페셜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생방송 토론740	50 태풍의 신부	05 마녀의 게임 40 MBC 뉴스데스크	45 닥터 365 50 SBS 8 뉴스
8	30 내 눈에 콩깍지	30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 9	50 두뇌공조	00 코믹 드라마 위기의 X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10	00 시사기획 창 50 더 라이브		30 PD수첩	00 신발 벗고 돌싱포
11	30 KBS 뉴스라인	00 스튜디오 K	30 100분토론	20 모범택시 2(재)
12	1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재)	10 아이 러브 스포츠 35 더 시즌즈-박재범의 드라이브	55 TV예술무대	4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클래스 e
05:50 한국기행
06:10 세계테마기행
07:00 꼬마버스 타요
07:15 출동! 슈퍼윙스
07:45 고고다이노 우리동네공룡
08:00 딩동댕 유치원
08:20 로보카 폴리
08:35 명탐정 피트3
08:50 뒤죽박죽섬의 빅풋패밀리
09:05 슈퍼두퍼 잉글리시
09:20 빅 블루
09:35 타타와 쿠마
09:40 용감한 소방차 레이
10:10 한국의 둘레길
10:3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뉴스 12
12:10 다큐영화 길 위의 인생
13:00 바닷가 사람들
13:50 EBS 다큐프라임
14:45 한국의 둘레길
15:05 나를 위한 매일 수업
15:3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16:05 영어 스토리 타임
16:15 페파 피그
16:25 명탐정 피트3(재)
16:40 딩동댕 유치원(재)
17:00 EBS 뉴스
17:20 못 말리는 어린 양 숀
17:30 뒤죽박죽섬의 빅풋패밀리
18:00 생방송 뭐든지 해결단
19:00 미라큘러스: 레이디버그와 블랙캣
19:30 한국의 둘레길
19:50 극한직업
20:40 세계테마기행
〈내 인생의 피에스타 콜롬비아 -카르페디엠! 안데스 사람들처럼〉
21:30 한국기행
〈봄이 오나 봄 2부 조도에서 봄 마중〉
21:50 EBS 다큐프라임
22:45 건축탐구 - 집
23:3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21일 (음 2월 2일 庚戌)

☎ 010-9790-8237

子 — 36년생 가급적 상대에게 배려하는 것이 미래를 향한 투자가 된다. 48년생 방심하다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60년생 솜씨를 발휘한다면 크게 호평을 받을 수 있다. 72년생 돌발적인 변수까지 감안하지 않으면 다된 마당에 파탄날 수도 있다. 84년생 훨씬 유리한 입장이 될 것이다. 96년생 초심을 잃지 말라. 행운의 숫자 : 28, 59

丑 — 37년생 능률적인 계획에 참여할 기회가 생기는 동세이다. 49년생 능숙하지 못한다면 속히 도움을 청하자. 61년생 적극적으로 조처해야 할 때가 도래하였도다. 73년생 번거롭더라도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구체적으로 결정해 버리는 것이 낫다. 85년생 현명하게 처신해야 할 일이로다. 97년생 소를 버렸을 때 대를 취한다. 행운의 숫자 : 43, 85

寅 — 38년생 결실을 기대하기에는 아직도 멀었다. 50년생 솔선수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62년생 격식이 필요한 때이므로 외형을 제대로 갖춰야겠다. 74년생 자발적이라면 뜨거운 반응을 얻게 되리라. 86년생 생왕의 기운으로 표리가 충만해지는 기쁨이 있다. 98년생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 바로 잡아야 할 것이로다. 행운의 숫자 : 02, 67

卯 — 39년생 갈수록 점점 더 가속도가 붙는다. 51년생 지금 관리해 두는 것이 이익이다. 63년생 복잡해지면서 혼란스러움을 야기하는 정황이다. 75년생 고질적인 병폐를 명쾌하게 해결하는 기쁨이 있다. 87년생 지난날의 구상이 오늘에 이르러서야 현실화 될 수도 있겠다. 99년생 넘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밖에 없다. 행운의 숫자 : 14, 52

辰 — 40년생 치밀하지 않다면 의외로 새어 나가는 것이 많으리라. 52년생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발전하는 국면에 놓인다. 64년생 예정된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 발전적이다. 76년생 주변의 위상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판도이다. 88년생 징후가 이상하니 현상을 유지하라. 00년생 순리대로만 처리한다면 무난하다. 행운의 숫자 : 10, 70

巳 — 41년생 적극적인 공격보다 더 완벽한 방어책은 없다. 53년생 형편대로 도모해야 무리가 따르지 않는 법이다. 65년생 매우 강도 높은 위험에 노출 되어 있으니 안전장치가 시급하다. 77년생 순조로워서 경사가 겹칠 수도 있다. 89년생 시기를 늦추고 자신을 낮추면 해결 된다. 01년생 현상은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다. 행운의 숫자 : 21, 63

午 — 42년생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는 판단을 그르칠 수밖에 없다. 54년생 이전의 양태와는 전혀 별개이니 따로따로 다뤄야 할 문제이다. 66년생 방심한다면 상대의 시험에 빠져들 수 있느니라. 78년생 정도의 차이가 심하여 도저히 견줄 바가 되지 못한다. 90년생 예상이 빗나가 버릴 수도 있다. 02년생 도움을 주는 이가 있다. 행운의 숫자 : 25, 88

未 — 43년생 태산 같은 마음가짐으로 정중동하는 성숙함이 절실하다. 55년생 지금은 번거롭더라도 머지않아서 유용한 역할을 하게 된다. 67년생 노파심을 버리고 편하게 지내도 되는 마당이다. 79년생 절실히 필요한 때에 해결해 주는 이가 있으리라. 91년생 듣기만 해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03년생 안정세로 접어들겠다. 행운의 숫자 : 05, 83

申 — 44년생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기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56년생 배려에 힘입어 풍성함을 누리는 운로이다. 68년생 외적인 화려함 보다 내적인 충일에 힘써야겠다. 80년생 적극성을 띤 선택이 아니라면 곤혹스러워질 수 있다. 92년생 탐스러운 육질의 과실이 줄렁줄렁 매달려 있다. 04년생 직접 다루어야 할 문제로다. 행운의 숫자 : 20, 90

酉 — 45년생 성과가 천양지차이다. 57년생 머리로써 파악하려 하지 말고 가슴으로써 공감하자. 69년생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큰코다칠 수 있느니라. 81년생 표면과 내용이 모두 완벽해야 의미가 있느니라. 93년생 깔끔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골칫거리로 남는다. 05년생 국면을 타개하는데 있어서 하등의 도움이 되지 못한다. 행운의 숫자 : 40, 71

戌 — 34년생 오늘의 선택을 잘 한다면 뒷일이 수월해지리라. 46년생 형편을 감안해서 개별적으로 처리함이 맞다. 58년생 여러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참으로 난처하게 될 것이니라. 70년생 지금 당장의 이득은 없어도 가까운 시기에 길경으로 이어지겠다. 82년생 말도 못하고 가슴앓이를 하리라. 94년생 급변으로 인한 충격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16, 56

亥 — 35년생 계속되는 형세하에서 진전을 보일 것이다. 47년생 직접 표현하는 것보다 우회해서 비유함이 더 낫다. 59년생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자. 71년생 순탄하지 않다면 내면에 문제점이 있다고 봐야 한다. 83년생 돌발 상황이 예상되니 확실히 대비해야만 한다. 95년생 진실을 가장한 거짓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15, 99